



군포시 반월호수 둘레길

CONTENTS

October 2020
VOL. 393

함께 ON 군포

군포오감	04
in & 人	08

가치 ON 군포

기획특집	10
헬로우 군포	14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 www.facebook.com/gunpocity
- blog.naver.com/o2gunpo
- www.instagram.com/gunpocity
- www.twitter.com/gunpocity
- www.youtube.com/user/gunpocity
- [https://pf.kakao.com/_eD\\$xb](https://pf.kakao.com/_eD$xb)



군포소식

발행	2020년 10월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군포시청 홍보기획과
홈페이지	www.gunpo.go.kr
디자인인쇄	경인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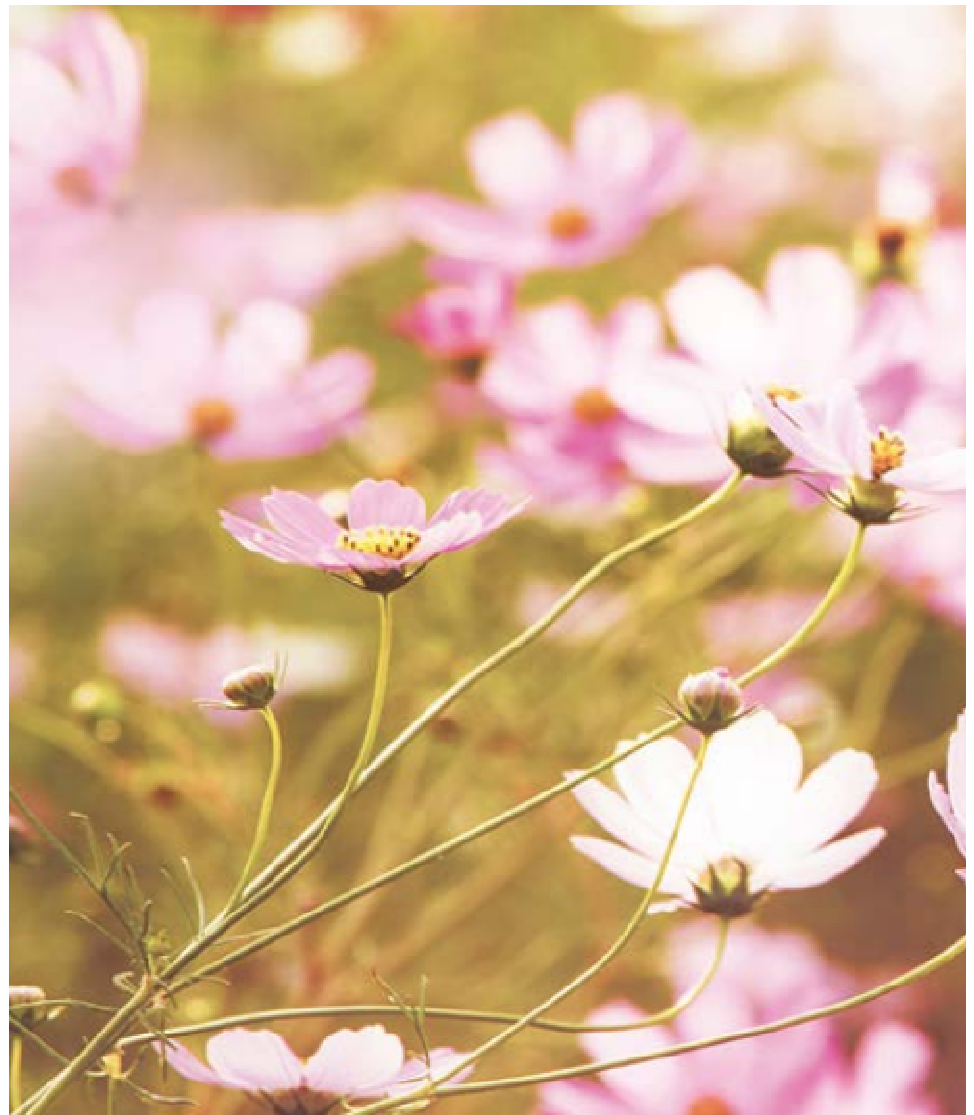
정기구독 신청(무료)

- 031-390-0062
- lysky@korea.kr

※ 구독 신청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 ON 군포

공감+공간	18
이야기가 있는 명화	20
핫 트렌드	22

행복 ON 군포

보건 복지 생활정보	24
희망소식	25
군포소식	26
의정소식	30

참여 ON 군포

행복소식	32
독자참여	34
문화 캘린더	35



가을은 그 해의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스런 미소이다

- 윌리엄 쉐익스피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군포초등학교**

새로운 군포 100년의 시작과 함께 하다



1920년 개교한 군포초등학교는 1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군포시 교육의 장으로서,
군포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으로서 그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

글/사진. 편집실



군포공립보통학교의 설립

군포공립보통학교는 1919년 인가받아 1920년 설립되었으며 2번의 명칭 변경을 거쳐 1996년 3월 6일 현재의 군포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군포공보, 군포장공립보통학교, 군포장공보로도 불리기도 하였으며, 설립 당시 군포장역 부근에 있었으나 1959년 10월 20일 현재의 위치인 당동 795-4번지(군포로 464)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시기별 변천사

태동기 (1920~1944)

1919. 06. 01.

군포공립보통학교 인가

1920. 04. 01.

군포공립보통학교 개교
- 수업연한 4학년제,
1대 무전응마 교장 취임

1925. 04. 01.

수업연한 6학년제 변경

1938. 04. 01.

명칭 변경 :
군포공립심상소학교

1941. 04. 01.

명칭 변경 :
군포공립국민학교

격동기 (1945~1959)

1950. 12. 31.

6·25 전쟁으로 인하여
교사 대파괴

1959. 09. 12.

5교실 및 현관 신교지
신축 준공(5,300평)

승용기 (1960~1995)

1959. 10. 20.

군포역전에서
현 교사로 이전

도약기 (1996~2015)

1996. 03. 01.

명칭 변경 :
군포초등학교

혁신기 (2016~현재)

2016. 09. 01.

제26대 천귀순
교장 취임

2017. 03. 01.

전로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 지정

2018. 03. 01.

혁신학교 지정

2019. 03. 01.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지정

2020. 04. 01.

개교 100주년

지역 내**중심학교로 성장한
군포공립보통학교**

1930년대까지도 흔치 않았던 6년제인 군포공립보통학교에는 인근 지역에서 이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 군포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다닌 안양 지역의 경우 1929년에 안양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이 학교는 1940년이 되어서야 6년제가 되어 그 이전까지는 안양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군포공립보통학교로 진학하였다.

**일제강점기
교육과정**

교육과정에는 일본어 교육과 더불어 실업교육이 강조되었다. 그 목적은 근로의식 고취와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보다 가혹한 수탈에 있었다.

또한 군사능력 강화와 황국신민 양성을 목표로 체육교육도 강조되었다.

일제강점기 식민 교육정책에 따라 일본어는 필수과목인 '국어'로 지정되었고 한글은 선택과목인 '조선어'로 전락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민족 언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다.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도 한글보급을 위해 한글 강습회를 열어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사(校舍)의 변천

1	2
	3
4	5

1. 1959년 구(舊) 교사 일부
2. 1972년 본관과 후관
3. 1978년 본관
4. 1987년 본관과 서관
5. 1993년 본관



군포초등학교를

빛낸 얼굴

(직함은 전직)

이재형 국회의원, 한봉수 상공부 장관, 이재준 대림산업 회장, 이성호 해군참모총장, 이필우 서울지방경찰청장, 한근이 경기도의회 의장, 조원극·노재영 군포시장, 김진용·권원혁·한우근·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 등 군포초등학교에서 굵직한 언물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군포초등학교의

현재

올해로 100년을 맞이한 군포초등학교는 2017년 진로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 지정, 2018년 혁신학교 지정에 이어 2019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지정 되는 등 관내 중심학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8월 21일 군포초등학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군포시장, 교육장,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비 제막식이 개최되었는데, 이날 제26대 천귀순 군포초등학교장은 "군포시 100년 역사에서 교육의 선두적 역할을 한 군포의 중심학교로서 군포 발전을 위해 교육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 품 명 : 함께 걷는 길
작품사이즈 : 1800 x 1200 x 2800H
작 품 재 료 : SUS, 우레탄도장
작 품 설 명 :
유쾌하게 뻗은 곡선의 오브제는 각각 시민이 이룬 100년 군포의 길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할 새로운 100년의 길 을 의미한다. 곡면의 질서는 군포시, 녹색은 군포시민, 그리고 100 개의 사공은 100 년을 나타낸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극적으로 뻗어나가는 길의 형상을 통해 군포시의 무한한 발전과 시민과의 화합 및 상생을 표현하였다.

3.31 군포장 민세운동으로 피어난
민족교육의 의지를 대승의 길로 연
군포초등학교

故 조중환옹이 교지를 출연하고
이름 없는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나아갈 미래 100년도
군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 조형물



〰

시민과 공무원, 공무원과 공무원 간
연대와 공감의 이뤄질 때 비로소
자치분권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ㄱ

협치할 준비 되셨나요? 우태영 군포시 협치 활동 강사

군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협치 활동 강사'는 시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펼치고 있는
소통행정 중 하나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 협치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협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강사들은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에 협치 활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태영 씨를 만나 그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사진 노호성

27만 시민이 협치 활동 강사가 될 때까지

지난 9월 시청에서 만난 협치 활동 강사 우태영 씨(48)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과 성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맹렬여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에도 빠듯한 현실에서,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기부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궁금해진다. 그가 협치 활동 강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앞서 밝힌 강사 활동들 중 인연을 맺게 된 지인의 권유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지역 내에 협치와 관련해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협치 활동 강사 모집에 나섰다. 여기에 우태영 강사도 참여해 자신의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총 7주간의 정규 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 25명의 교육생들이 수료를 마쳤다.

현재 우태영 강사와 함께 활동 중인 동료는 모두 6명으로, 첫 연단에 섰을 때 당시의 감동이 여전히 여운으로 남는다고,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강의를 해왔음에도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을 때의 느낌은 사뭇 달랐다.”고 말하는 그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아쉽지만 활동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로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다. 반면 협치 활동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군포라는 도시가 꽤나 매력적인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시민 모두가 협치 활동 강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내가 가진 관심만큼 보이는 우리 도시, 우리 마을

우태영 씨는 협치 활동 강사로 활동하며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으로, 소통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한 애착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꼽았다. 협치 활동 강사로서 활동 이전엔 그저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살아온 시민 중 한 사람이었지만, 시청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자신이 교육하며 능동적인 협치 행정의 주체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태영 씨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의 발전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또 협치 활동 강사 본인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협치 전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긍정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에 함께 참여해 달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협치 활동 강사로 현장에서 활동하며,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모든 불신은 소통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는 본인 스스로도 관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던 시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치 활동 강사로 활동하며, 조직문화와 또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결국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중간지로서 의 매개체가 된 셈이다. 또 양분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의 사회현상을 바라보며, 지금이야말로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군포시보건소 24시

코로나19 재확산,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군포시보건소를 찾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일상에서 새삼 코로나19의 심각성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공감하게 된다.

글/사진. 노호성

365일 비상대기 체계 유지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인구대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집회와 요양원, 그리고 각종 모임과 식당 등의 밀집된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군포시보건소 정구정 과장을 만나 군포시의 방역상황과 위기대응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군포시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365일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한 덕분인지 보건소 현장은 꽤나 안정된 모습이다.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해 만든 선별진료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 군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정구정 과장

정구정 과장은 “현재까지 임시 선별진료소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유휴부지를 활용해 365일 가동이 가능한 상시 선별진료소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폐결핵과 같은 여러 감염병까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정구정 과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 148명의 확진자 중 143명을 분석한 결과 종교시설이 28%, 지역사회감염이 15%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무증상자의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

코로나19의 종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구정 과장은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호흡기클리닉 센터’를 두어 감기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한편 보건소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만 하루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도 구축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발 빠른 역학조사를 통해 2차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즉각 이송할 수 있는 이송차량도 상시 대기 중으로써, 환자 또는 시민들을 이송 후 2시간의 텀을 두고 소독과 환기를 진행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구정 과장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올해 초부터 쉴 틈 없이 시민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과 피로감이 그것이다. 이는 건강한 직원이 시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신념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그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우리 군포시의 경우 수도권역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군포시보건소가 그 중심에서 추가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보건소가 누구보다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응원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마스크가 백신 그 자체임을 명심해달라.”며 당부 인사를 전했다.



1	2
3	4

군포시보건소의 다양한 활동

1. 생활방역지킴이 캠페인 2. 방역 3. 자가격리자 물품 관리 4, 5.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1 확진자 발생 인지

-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담당자에게 유선통보
- 검사결과 상세정보 확인(CT값·전파력 추정)

2 기초역학조사

- 확진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 증상발현 2일 전부터 날짜/시간별 동선확인 및 접촉자 유선 조사

3 상위 기관 보고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및 경기도 확진자 발생보고



4 입원치료병상 배정 및 확진자 이송

- 확진자 이송 즉시 자택소독 및 동거인 이송하여 검사 실시



5 동선 내 시설 및 장소 일시폐쇄 및 방역소독

- 1차 기초조사 시 확보된 정보에 근거하여 동선 내 소독조치 (확진자 자택, 직장, 방문장소 등)

6 확진자 발생상황 공개

- 재난문자 발송 및 기본사항 블로그, 홈페이지 등 게시

7 심층역학조사 (현장조사 및 접촉자 조사)

- 역학조사관 : GPS, 카드사용내역 조회(이들 정보 소요)
- 경유지 감염위험도 평가 및 CCTV 확인하여 접촉자 분류
- 장소특성, 접촉정도, 마스크착용유무 등 CCTV 분석을 통해 접촉자 조치사항 결정

8 접촉자 분류 및 1차안내

- 접촉자 조치사항 안내 및 조사 실시(직업, 동거인 사항 등)
- 자가격리자 관리
- 1:1 전담공무원 배정 : (사회재난팀 → 군포시 전 공무원 배정) → 2회/일 증상확인(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1회/일 유선통화, 자가격리지 이탈 불시점검, 불편사항접수 및 해결

9 역학조사 결과공개

- 발생 상세정보 및 조치사항 안내
- ※ 동선 내 접촉자 분류가 완료된 경우 상세동선 비공개
- ※ 접촉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PA 및 동선공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절차

1 진단검사

- 선별진료 시스템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2 검체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 직접 운송
- 수탁검사기관 : 검사기관 운송

3 검사자 웹보고

- 당일 검사대상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웹보고

4 접촉자 이송

- 진단검사 시 : 자차 없고, 도보 불가능한 경우 이송지원
- 자가격리 중 : ① 필요불가결한 응급상황 시 이송지원 및 동행 ② 가족 장례절차 일부참석 시 이송지원 및 동행



한 타임에 한 가족만!
수리산상상마을 한 가족 프로젝트

내가 먼저 GREEN 전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들과 집에서 방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도 안쓰럽고, 집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부모님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 역시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던 중,
수리산상상마을이 한 타임에 한 가족만을 위한 전시, '내가 먼저 GREEN'을 개최했다는
기쁜 소식에 전시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글/사진. 군포시 시민기자 이진아



이병찬 작가의 CREATURE

환경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텃밭에서 싱그러운 농작물을 관찰하며 힐링할 수 있었던 전시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상상마을 한 가족 프로젝트 '내가 먼저 GREEN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가족당(5인 이내) 입장료 5,000원만 내면, 가족끼리 안전하고 오붓하게 관람을 즐길 수 있는 전시랍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상상마을에 우리 가족만 있다 보니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가족사진을 촬영해 끝 무렵 인화한 사진도 전달해 주시는데요. 덕분에 두고두고 기억할 좋은 추억이 되었네요.

전시는 크게 3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는데, 먼저 예술 작품을 감상한 뒤 직접 체험해 보는 형식이었어요. 아래 사진은 플라스틱과 포장용 비닐을 사용, 도시의 반복된 소비 행위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마치 괴물이 된 것만 같아 쓸쓸함을 자아냈어요. 작품이 내는 기괴한 소리에 큰아들도 살짝 겁을 먹은 눈치였답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면
가족사진을 제공한다.



방영경 작가의 비닐화석



양쿠라 작가의 돌아온 몬스터

방영경 작가 <비닐화석>도 눈여겨볼 작품이에요. 비닐에 멸종 위기 생물을 본 따 오리고 다려서 설치한 작품으로, 지구에 생물종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쓰레기만 남게 될 것만 같은 경각심을 주었어요. 관람객이 직접 비닐을 오려 작품에 부착할 수도 있는데, 내가 버린 무수한 쓰레기들이 떠오르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부터 본격적인 체험형 작품들이 시작돼요. 아래 작품은 바닷가에 밀려온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를 재해석해 만든 작품인데, 관람객이 직접 자전거 페달을 밟고, 드립

과 오르골을 연주해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제목이 왜 <돌아온 몬스터>인지는 직접 체험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체험 뒤 돌아가 아이들과 스토리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홍운 작가의 <분리수거 집, 분리수거 일기>를 감상했어요. 4인 가족이 하루에 만드는 플라스틱과 비닐의 양에 놀라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쓰레기 배출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 작품이에요. 손이 많이 가고 조금 귀찮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당하리라! 다짐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번엔 장소를 이동해 상상 작업실로 향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듯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보고,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PET, HDPE, PP, PS, PVC 등 헛갈리는 마크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아이보다 엄마 교육이 우선이라며, 저도 함께 앉혀 주셔서 열심히 공부한 곳이에요. 통로에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용품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장바구니, 손수건, 샴푸 바 등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친환경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었던 공간이에요.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된 친환경 용품들



텃밭과 텃논을 관찰할 수 있는 상상농살림

상상마을 앞마당에서는 직접 텃밭을 관찰하며, 활동지를 기록해 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너머로도 진한 바질향이 느껴졌는데, 초록의 농작물을 보고 있으니, 자연이 주는 선물의 의미를 알 것만 같았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 이번 전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작은 실천이지만, 아이와 함께 우유팩을 모으고, 꼭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는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천 중인 우유팩 모으기와 장바구니 사용

Mini Interview

신 미 라

군포문화재단 수리산상상마을

교육사업팀 팀장



올해 어린이 창의 예술센터 주제가 ‘환경’인데요. 아이들에게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차,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일상생활 속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빗물을 모아서 밭을 꾸리고, 농작물이 자라 우리 먹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상상 텃밭을 만들었고요. 텃밭 같은 경우,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자주 둘러 농작물을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환경 보호 실천에 첫걸음이 되어준 전시, 여러분도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시도 보고, 추억도 쌓는 1석2조의 나들이가 되어줄 테니까요.

① Information

- ② 수리산상상마을
어린이창의예술센터 상상숲
(군포시 수리산로 112)
- ③ 10. 31(토) 까지 운영 09:00-18:00
(일요일/공휴일 휴관)
- ④ 031-390-3033-34

군포 수리사

살아온 천년의 시간을 제 몸에 새기다



가을의 초입에서 만난 군포의 이채로운 표정들을 그대로 담아 있는 수리산, 그 수리산이 품고 있는 '수리사(修理寺)'는 군포 2경에 속하는 명소로서 천년의 역사를 기록한 채 늘 그 자리에 서있다.

글/사진 노호성

천년고찰 수리사에서 마음 내려놓기

도심을 벗어난 지도 잠시, 구불구불 난 한적한 길을 따라 여유를 부려볼까 하던 찰나 막다른 길을 만난다. 그곳에 번듯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수리산도립공원탐방 안내소'로 여행자들에게 정보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차를 주차 후 카메라를 꺼내 들고 잠시 주변을 탐색해보니, 좌측으로는 수리사로 오르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는 잘 정돈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목적지인 수리사 방향으로 발길을 청했다.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완만한 오르막길을 10여 분 정도 걷

다 보니, 그제서야 수리산의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계곡 따라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가 기쁜 숨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그곳에서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출발해보자.

잠시 걸다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한 통행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자연을 음미하며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오르는 길 중간중간 서 있는 크고 작은 기암괴석과 조화로이 어우러진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숲속 풍경은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자아낸다.





대웅전 위로 조금의 수고를 더해 오르면 산신·칠성·독성을 함께 봉안한 삼성각(三聖閣)이 있는데, 여기서 대웅전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겹겹이 둘러싸인 산세 사이로 군포 시내의 빌딩숲들이 빼꼼히 보인다. 여기서 차분히 자리 잡고 앉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수리사는 군포시민들이 사랑하는 수리산 남서쪽 중턱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통사찰 제86호로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사찰이다. 왕손인 운산대사가 이 절에서 기도하던 중 부처님을 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면서 견불산 수리사라 했다고. 한편 예전엔 대웅전 외에 36동의 전각과 12개 암자가 있는 대찰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됐으며, 의병장 객재우 장군이 절을 재건하고 입산수도했다고 전해진다.

전날 내린 비로 연해서인지 명확지는 않으나, 오르는 중간 굽이쳐 돌아내리는 계곡물이 만들어내는 제법 그럴싸한 작은 폭포가 하나 보인다. 그곳에 시선을 두고 가만히 기대어 휴식을 취하다보면 신선이 된 듯 오롯이 평온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쉬엄쉬엄 20여 분 정도를 더 오르면 목적지인 수리사에 도착할 수 있다.

목적지인 수리사 초입에 닿으면 올라온 길보다 더 가파른 쪽으로 시선이 닿는 곳에서 일주문이 방문자를 맞이하는데, 수십 개의 계단을 통해야 오를 수 있으니 어르신들 또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좌측으로 난 길을 이용하길 추천한다. 일주문을 통과하기 전 수리사 주인인 부처님께 합장해 인사를 올린 뒤 대웅전을 시작으로 사찰 내 곳곳을 돌아보자. 목이 마르다면 수리산 정기를 그득 담고 있는 편강약수(便康藥水)로 목을 축여보자. 그 이름처럼 몸에도 마음에도 편안함이 더해진다.



이야기가 있는 영화

20세기 미술사의 불멸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우는여인>



Weeping Woman / 1937 / Oil on canvas / Penrose collection, London, UK / 60 × 49cm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서양화가이자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입체파를 탄생시킨 불멸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그는 대중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천재성으로 인정받아왔으나
세기말적 스캔들로도 유명세를 떨쳤다.

글. 김다현 자유기고가

파블로 피카소의 순수한 삶과 작품 사이

피카소를 논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의 여성 편력이 회자되곤 한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7명의 여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두 번 결혼을 통해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요즘의 우리라면 감히 상상조차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피카소의 여인들은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감과 영향을 끼쳤으며, 잠시 스쳐간 여인들까지 더하면 10여 명이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전에 "사랑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청량제" 또 "섹스와 예술은 같은 것"이라고 말한 단편적 모습만 보아도 사랑이 그의 인생과 예술세계에 큰 영감을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는 판단이다.

실제 그는 반려자가 바뀔 때마다 화풍의 변화를 이뤄냈다. 수많은 미술사학자들도 그의 여인들이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밝힌다. 이처럼 수많은 염문에도 그가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미술사에 있어 큰 스승이자 천재였음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인데, 브라크와 아울러 입체파라고 알려진 큐비즘의 창시자로서 큰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피카소는 '콜라주 기법'을 도입해 르네상스 이후 서양미술이 원근법과 명암법을 통해 재현하는 전통을 거부하는 선구자로 각인되었다. 이밖에도 추상화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황소를 소재로 한 드로잉의 연작과, 또 선재를 사용한 철조 작업을 비롯한 레디메이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조합한 작품 등을 선보이는 등 20세기 전위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다.

도라 마르와의 운명적 만남과 '우는 여인'

'도라 마르(Dora Maar, 1907~1997)'는 피카소의 수많은 여인들 중 그의 창조를 위한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그야말로 뮤즈(Muse)로서의 존재였다. 둘의 만남은 1936년으로 피카소의 당시 나이 56세, 도라 마르의 나이 28세 때였다. 이들의 인연을 이어준 이는 프랑스 시인 폴 엘뤼아르(Paul Eluard, 1895~1952)였다. 사진작가로서 유명세를 떨쳤던 도라 마르는 당대의 여성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던 당당함과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피카소를 매료시켰다.

이 둘의 관계는 피카소가 가정과 자식이 있음에도 동거를 시작할 만큼 빠르게 가까워졌고, '도라 마르'란 제목의 수많은 초상화도 당시 그려졌다. 1937년에는 그녀를 모델로 여러 버전의 '우는 여인'이 스케치와 회화, 그리고 판화로 제작되었으며, 이번에 소개하는 그림이 대중들에게 가장 폭넓게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을 보면 입체파의 특징인 화폭에 여러 시점이 중첩되어 있는데, 에스파냐의 내란을 주제로 전쟁의 비극성을 표현한 피카소의 대표작 '게르니카(Guernica)'의 습작이 되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고국에서 벌어진 참담한 비극에 대한 심경을 여인을 통해 표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뼈아픈 사연을 알고 보니 그간 그저 스쳐만 보냈던 작품의 내면에 공감이가 더해진다. 한편 두 사람은 십여 년간의 인연을 뒤로 한 채 관계가 끝났고 이후 도라 마르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삶을 마감한 1997년까지 인간관계를 거부한 채 그림에 몰두했다고 전해진다.

개성이 존중받는 역트렌드가 대세다

<Counter-trend>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유행 또는 트렌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유행'과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방향을 뜻한다는 점에서 유행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바로 역트렌드다.

글. 김성태



역트렌드(Counter-trend)

비슷비슷한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에 거부감을 느낀 이들이 만들어낸 트렌드를 '역트렌드'라고 부른다. 이는 기존의 트렌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류적 경향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써 새로운 형태의 신선함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트렌드가 되지 못한 채 패드3(1~2년 혹은 한시적 기간 내에 짧은 시간 존속하는 변화) 정도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존의 트렌드를 대체하거나 또는 공존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역트렌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기업의 마케팅과 TV 프로그램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역트렌드의 주요 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는 남들과 다름을 인정받고 싶은 역심리와 특정방향을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짓고자 하는 마음이다. 또 두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자기표현 욕구와 자존감이 작용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반복적인 마케팅에 노출된 피로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

는 트렌드를 지연시키는 환경적 요인도 역트렌드를 가속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에 대한 존중

보통 트렌드는 앞서의 설명과 같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역트렌드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디지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날로그 감수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문화를 대변하는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보의 범람에 의한 피로도가 역트렌드의 가속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다소 느리고 불편하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인 아날로그의 속성에서 디지털의 공허함을 보완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 트로트의 인기가 재점화된 현상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역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에 의한 생산과 소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 '문화역서울284(구서울역사)'에서 열렸던 '서울레코드페어'에서 LP판을 구매하려는 주 연령대가 20~30대였다는 사실 또한 역트렌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식생활 분야에서도 역트렌드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건강을 고려한 웰빙식이 인기를 누리다가 싶더니, 이내 유튜브를 통해 칼로리를 무시한 소위 먹방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해 즐기는 홈룩이 식생활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에 기업들 또한 앞다퉈 마케팅에 활용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다양성과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커뮤니티 채널의 다양화로 인한 역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 위한 냉장고 속 음식·식재료 관리 요령

긴 추석 연휴 추석 음식 만들고 보관하고 섭취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과 저녁 낮의 기온 차로 음식 보관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먹기'의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하고, 음식은 필요한 만큼 준비하자. 그럼 이제부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냉장고 속 음식과 식재료 관리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음식·식재료 상태 수시로 점검하기

- 식품 포장 용기의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확인하기
- 식재료의 외형, 색, 냄새 등으로 신선도 확인하기



상하거나 오래된 음식·식재료 과감히 버리기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음식은 아까워 말고 버리기
- 한 번 개봉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하여 냉장 보관하기



냉장고 안 음식·식재료 제대로 보관하기

- 냉장고 적정온도(냉장온도 0~5℃, 냉동온도 -18℃ 이하) 지키기
- 냉장고 꽉 채우지 않기(70% 이하)
-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기
- 냉장·냉동식품은 구매 후 바로 보관하기
- 음식과 식재료는 가급적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여 확인하기 쉽게 하기
- 식재료 구입날짜 표시하기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

군포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일자리 정보!

기업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주)두비산업 조미식품제조, 도·소매 ㉠ 군포시 산본로77번안길 6 (당정동)	포장(패키지) 디자이너 / 1명	㉠ 08:30~17:30 ㉡ 연봉 3,000만원~3,200만원
(주)바이온텍 의료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제조 ㉠ 군포시 공단로 298-15, 금정동 (금정동)	전기 부품-제품 조립·검사원 / 1명	㉠ 09:00~18:00 ㉡ 시급 8,590원 이상
주식회사 한양스틸 금형부품 도매 및 절단 및 가공 ㉠ 군포시 공단로140번안길 27 (당정동)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 / 2명	㉠ 월, 화, 목, 금 08:30~20:30 수 08:30~18:30 토(격주 근무) 08:30~15:00 ㉡ 월급 250만원 이상
피에스텍 전원장치 제조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1로 25-25, 피에스텍 (부곡동)	전기기가-제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 4명	㉠ 08:00~17:00 ㉡ 연봉 3,000만원 이상
(주)현성컨버전스 정보통신 공사업 및 제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자동제어장치송강기부품제조 ㉠ 군포시 산본로48번길 32, 금봉테크노빌1차 802호 (당정동)	전기-전자 제어장치 설치-정비원 / 2명	㉠ 09:00~18:00 ㉡ 연봉 2,500만원~3,000만원
메디허브 주식회사 의료기기 도매 및 소매업 ㉠ 군포시 엘레스로 175, 108호 (SA타워) (산본동)	해외 영업원(영어) / 1명	㉠ 09:00~18:00 ㉡ 연봉 3,400만원~3,600만원
(주)코아전기 코아 제품 생산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53, 코아빌딩 (부곡동)	전기 부품-제품 조립·검사원 / 1명	㉠ 09:00~18:00 ㉡ 연봉 2,400만원 이상
(주)진한 산업, 가정용플라스틱일반성형 ㉠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55, 진한 (당정동)	사무 보조원(일반사업체) / 1명	㉠ 08:30~18:00 ㉡ 연봉 2,200만원~2,400만원
(주)재민뷰텍 실크 인쇄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6 (부곡동)	시각 디자이너 / 2명	㉠ 08:30~17:30 ㉡ 연봉 2,800만원~3,500만원
미라클요양병원 요양병원 ㉠ 군포시 삼성로8번길 4-20, 미라클요양병원 (부곡동)	병원 급식 조리사 / 1명	㉠ 06:10~18:30 (휴게시간 3시간 / 월 8회 휴무) ㉡ 연봉 2,600만원~2,700만원

* 2020년 9월 18일 기준 자료로 구인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정보는 일자리센터(031-390-03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소식

군포시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01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시행

지원대상 건축허가를 받아 2005. 12. 31.이전 사용승인(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 시에도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0. 10. 20. ~ 11. 20.(30일간)

사업종류 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다.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라. 담장 허물기 사업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마.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바.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자·보수 사업
사. 공용시설외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기준 가. 최고 지원금액은 2021년도 예산확보액 중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2,000만원 이내)
나. 최종 지원금액은 최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시공업체는 군포시 소재 업체에 한정

접 수 처 건축과 ☎031-390-0402

02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사용 시 최대 5만원 지급
우리 동네 추석경기 살리기

2020년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경기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1인당 3만원 소비지원금 추가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혜택	지급일자	지원기간
반경지역 10%소상공인	즉 시 지급	무
소상공인 10%소상공인	11월 10일 25일 / 12월 11월 25일	발행일부터 1개월

※ 지원금액 3만원 한도 / 1인당 1회 한도 / 소비금액 2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궁금해요!
경기도 홈페이지 031-1200

- 1 기존에 소진된 지역화폐를 사용해도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 발행 후 1주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 3 1인당 총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 4 반 경 지역에는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많지 않아요.
- 5 지역별 소비지원금과도 사용하는 경우에도 3만원이 가능한가요?
- 6 지원금 지급일은 시정에서 확인 할 것인지 12월 말까지 지급되나요?

11월 10일 25일 / 12월 11월 25일

03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 및 접종기관	구분	대 상	접종기관	기 간
어르신		만 75세 이상 어르신 (1945.12.31.이전 출생자)	위탁의료기관 95개소(보건소 접종불가)	10. 13. ~ 12. 31.
		만 70~74세 (1946.1.1.~1950.12.31.출생자)		10. 20. ~ 12. 31.
		만 62~69세 (1951.1.1.~1958.12.31.출생자)		10. 27. ~ 12. 31.
취약 계층		군포시민 만 50~61세(1959~1970년생) 기초생활수급자, 군포시민 만 19~61세(1959~2001년생) 심한 장애인	위탁의료기관 65개소(보건소 접종불가)	10. 27. ~ 12. 31.
		국가유공자(만 50세~61세), 세 대응요원 등		
어린이	6개월~만 18세 이하 (02.1.1.~20.8.31. 출생아)	2회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57개소(보건소 접종불가)	'20. 9. 8.~'21. 4. 30.
		1회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65개소(보건소 접종불가)	9. 22. ~ 12. 31.
임신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한 임신부	위탁의료기관 32개소(보건소 접종불가)	'20. 9. 22. ~'21. 4. 30.

※ 중학생(만 13~15세) 접종기간 사업기간, 변경 예정

지원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예방접종 1회

※ 국가유공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예약 후 국가유공자증을 지참 후 군포시보건소로 방문해주셔야 하며, 산본보건지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 의 군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31-390-8954~5

04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가 면접비 드려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는 청년 면접수당
만 18세에서 39세까지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면접을 본 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전화 : 1877-2048

06 군포시 시민기자단 추가모집

더 다양하고 풍성한 군포시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군포시 시민기자단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모집 및 발표 일정

- 모집기간 : 2020. 10. 6.(화)~10. 25.(일), 20일간
- 최종발표 : 2020. 11. 3.(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 총 10명 내외(블로그 기자단 6명 / 유튜브 기자단 4명)

참여방법 군포시 대표 SNS 채널 및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anjih@korea.kr

문의 홍보기획과 ☎ 031-390-0092

05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2021년도 법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실시

2020. 9.14.(월) - 10.31.(토)

법정부 합동(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으로
초등학교 재학생 및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온종일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설문 소요시간은 2분 내외이며,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200명에게 모바일 기프트콘(3천원) 제공 예정

재학생

참여대상 초등학교 1~5학년 보호자
참여기간 2020. 9.14.(월) ~ 10.31.(토)까지
참여방법 모바일 수요조사
(URL 또는 QR코드 통해 참여가능)
<https://bit.ly/3bm5nkk>

산학생

참여대상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 보호자
참여기간 2020. 9.14.(월) ~ 10.31.(토)까지
참여방법 모바일 수요조사
(URL 또는 QR코드 통해 참여가능)
<https://bit.ly/2F2LG7X>

온종일 돌봄이란?

방과 후나 방학기간에도
학교나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
(초·중·고교 및, 다문화 가정, 70세이상 노인,
정신장애아동, 이주세대 등)

군포소식

군포시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07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



도로명주소 퀴즈를 풀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제 1 건물번호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이다.
(O / X)

문제 2 '번영로 2'와 '번영로 4' 건물번호 사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① 10m ② 20m ③ 100m ④ 200m
※ 퀴즈 정답은 아래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참고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응모기간

2020. 10. 1.~10. 20.

응모방법

퀴즈 정답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이메일 hsgogo@korea.kr로 전송



마스크, 파우치

※ 선착순 100명(우편배송)
※ 당첨자 발표 없음

[상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시 본인 확인 및 상품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 ※ 우편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 ※ 상품은 정답자 개별 연락 없이 선착순 100명 주소(우편배송)로 발송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시는 경우 귀하의 성함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 이름 : _____ • 휴대전화번호 : _____ • 주소 : _____

※ 잘못된 주소 기재 시 상품 미도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 주거·생활·문화 편

시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정보를 한 권으로 볼 있는 '생애주기 인구정책 통합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군포소식>은 꼭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며, 이달은 주거·생활·문화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간된 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와 시청 홍보기획과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 분야별정보 ▶ 복지 ▶ 인구정책에도 게재돼 있습니다. 문의 군포시청 홍보기획과 기획연구팀 ☎ 031-390-0052



🏠 주거 관련 주요 생애주기 인구정책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 의 건축과 ☎ 031-390-073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336만원(초과비용 발생시 자부담)
지원계획 주택 3동, 비주택 1동 지원
문 의 환경과 ☎ 031-390-0732

🎓 문화 관련 주요 생애주기 인구정책

군포 시민대학 운영

운영기간 3월 ~ 12월(월 1회)
운영장소 문화예술회관 칠죽홀
참여대상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강의분야 일반교양, 과학, 문화예술, 역사, 소통, 건강, 교육 등
문 의 청소년청년정책과 ☎ 031-390-0582

🏠 생활 관련 주요 생애주기 인구정책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군포시 주민등록자가 사망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
지원내용 1구당 30만원(30만원 미만은 실비 지급)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 의 위생과 ☎ 031-390-0165

시민 안전보험

지원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유장애 시 보험금 지급
보 장 액 사망(1,500만원) 후유장애(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해당보험사로 직접 신청
증빙서류 보험금청구서(군포시홈페이지 다운),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및 기타 필요서류
문 의 재난안전과 ☎ 031-390-0404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의정소식

군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려드려요

☞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최... 가림막 설치 등 방역 강화



제1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군포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9월 14일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지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연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9월 14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후 지역 개발에 대한 행정 지원 촉구'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서 입법 활동 활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군포시 의회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군포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들이 마련되는 등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 및 기타안건은 총 27건으로, 이 중 7건이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다.

장경민 부의장(상단 좌측)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군포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금자 의원(상단 우측)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며,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군포시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다.

김귀근 의원(하단 좌측)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함이며,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터를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우천 의원(하단 우측)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적극 대처하여 예방하기 위함이다.

총 27개의 조례 및 기타안건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1개는 수정, 2개는 원안 폐기 후 위원회 대안 발의, 나머지 24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성복임 의장은 "군포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포시의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연구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의회를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포시의회, 청렴의식 강화에 한걸음 더

군포시의회는 청렴의 중요성을 새기고 시의원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9월 9일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문양근(옴코드컨설팅 대표)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문적인 강사의 설명 아래,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공직자나 시의원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군포시의회 의원 전원이 교육에 참가했으며,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청탁과 부패행위를 명확히 식별하여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은 열띤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을 마친 뒤 성복임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청렴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포시의회를 청렴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시·수필(자유 주제)

분량 1,100자 이내(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lisky@korea.kr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 지급 : 3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사전 연락 없음.)
- * 기고 제출 시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됩니다.
- * 제출기한은 매월 18일까지입니다.



숨겨진 배려

사그라들 것만 같은데 피어나고
잠잠해질 것만 같은데 퍼져나고

갈수록 삭막해지고
더위에 예민해지지만

가려진 마스크 사이로
보이지 않는 미소가 비춰지고
상대를 향한 예의가 담겨있는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숨겨진 배려를 보여준다



황다혜

수리산 종택에서

이도 저도 마땅찮아 인사 없이 더웠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기력지가 얼마인지
내 곁에 모른 채
철이른 노란 잎이 앞았다. 살아가며 길을 찾네.

작년 이맘때 산길 못 본 지 수 달 되는
좋은 일 빌며 걸었는데 이구동성 친구 전화
올해는 그냥저냥
아무 일 없기만 바라네. 살아남도록 살자 했네.

범접하지 못할 시간
비행기 종이배 접는
색종이로
이스탄불 가고 태종대 간다.



김영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원이 아빠 정현철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해외영업을 위해 채용됐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수출입 업무 자체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국내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부자재를 국내 업체에 영업하여 판매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차선책으로 영업부와 관리부의 근무지를 경기도 외곽의 사무실로 옮기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실을 지난봄에 통보받았습니다.

국내 영업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상황에 출퇴근 시간이 평소에 3배로 늘어나고, 조만간 둘째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부득이하게 이직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해외영업 경력직 채용은 거의 없는 데다가 있어도 스펙과 나이에 서 밀렸습니다.

어느 날 경기도 외곽의 원룸을 알아보던 찰나 외국계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의 행정 및 운전직 채용공고를 접했습니다. 미군부대에서 행정 및 운전병, 첫 직장에서 행정 및 운전을 한 경험이 떠올랐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관이라 그런지 서류 전형과 면접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1차 면접 후 1주일이 지나 연락이 왔고 2차 면접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합격.

하지만 출근일이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라 이전 직장의 업무 인수인계 및 차량, 비품 반납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서 퇴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출근 바로 전날까지 일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직을 하여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모두 힘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돌아가야 이긴다

여간해서는 놀라지 않는 강심장 남편이 창박을 보다가, 동그란 눈을 하며 겁을 먹은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다. 밖에는 응급차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데 코로나19 만큼은 무서웠나 보다.

나 역시 코로나가 무섭다.

그러나 이 시대에 더 무서운 게 있다면 그건 이기주의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기주의가 뿔뿔 뿜쳐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그보다 강력한 태풍이 또 있을까. 파업도 시위도 당파 간의 갈등도 명분은 저마다 다르지만 원하는 건 다 같다.

시위는 우리 모두를 집안에 가두고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았으며, 당파간의 갈등은 국민들을 분열시켰고,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이익을 쫓는 집단이야 어느 시대건 있었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했으며, 이 땅에 뿌리내리던 수오지심과 측은지심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IMF때 우리는 장롱 깊이 아껴두던 소중한 금불이를 꺼내 들었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이 푸르게 된 것은 우리가 심은 나무들 덕분이었고, 그릇된 지도자를 끌어내리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항상 국민 스스로였다.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끝고 갈것인가, 끝낼 것인가.

돌아가자,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수칙을 준수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영문도 모르고 갇힌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이다.



신연경



숨은그림찾기

그림 안의 일곱 군데 숨은그림과 이달의 수수께끼 정답을 찾아주세요.

숨은그림 신발, 자동차, 포크, 붓, 종, 달팽이, 공

수수께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 새로운 군포 100년의 시작과 함께하다 (4페이지 참조)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예 ☐ 아니오 ☐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후 사진을 촬영해 10월 20일까지 이메일(lysky@korea.kr)로 제출해 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개별 공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휴대전화 번호 표시 필수(휴대전화 번호 잘못 기재 시 당첨 취소)
- 대용량 사진 파일 첨부 금지(다음, 한메일은 대용량으로 첨부되므로 이용 금지)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시 추첨에서 제외

지난 호 정답자

김*숙 010-9**7-*14*

정*희 010-6**8-*72*

박*희 010-3**9-*40*

노*옥 010-7**9-*42*

손*정 010-9**5-*78*

지난 호 정답

수수께끼 아동친화도시

숨은그림 붓, 브로콜리, 나뭇잎, 무, 모종삽, 로켓, 솟불



10

CULTURE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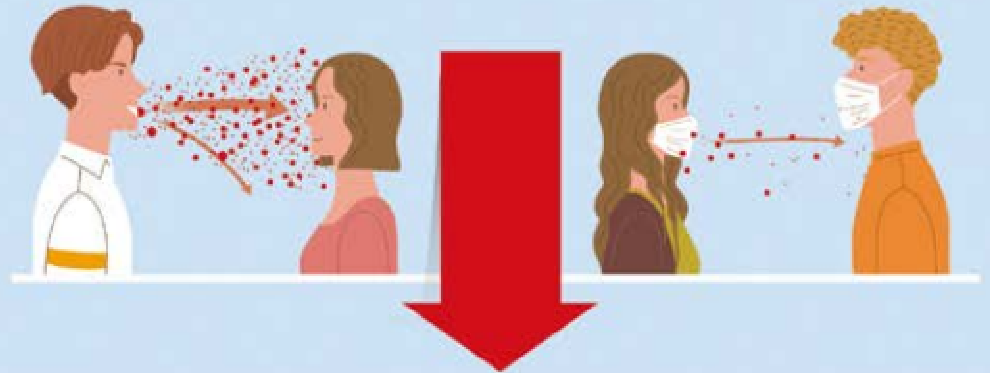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수리산상상마을 함께하는 랜선 예술교육 일정 10월 초 장소 군포문화재단 유튜브 내용 어린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리산상상마을 기획전시회에 참여했던 작가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창의예술 활동할 수 있는 교육영상 제작 문의 031-390-3036	경기대학교와 함께 하는 군포마을 캠퍼스 NET 「실전 청년 창업지원 교육」 운영기간 10월~11월 운영내용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실전 교육 수강료 무료(재료비 별도)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네이버폼 이용) 문의 031-390-3057	1 추석 2 3 개천절 소상공인 대상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기간 9월~11월 운영내용 군포시평생학습원과 경기대학교가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아이템 창업 및 글로벌 셀링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수강료 무료(재료비 별도) 장소 신봉로대오거리 상인회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네이버폼 이용) 문의 031-390-3057	4 5 6 7 8 9 10 수리산상상마을 평생교육강사 제1차 실사 운영 모집기간 10. 5(월)~10. 16(금) 모집대상 해당분야전공자 및 경력자로서 온·오프라인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 강사 접수방법 이메일(gp3903053@hanmail.net) 문의 031-390-3032 ※ 자세한 내용은 수리산상상마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댄스실롱 in 군포 II. 여인의 향기 일시 10. 6(화) 19: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죽홀 입장료 문화가 있는 날 특별가 5,000원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온라인 군포아트마켓 일시 10. 8(목) 오후 예정 장소 군포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내용 생활문화예술 온라인 장터 문의 군포시생활문화센터 031-390-3043 생활문화콘텐츠 지원 「취미는 예술展」 일시 10. 8(목)~10. 18(일) ※ 코로나 상황에 따라 현장 관람은 제한 될 수 있음 / 온라인 전시 10. 16(금) 오후 예정 장소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갤러리홀 / 온라인 VR전시관 (군포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입장료 무료 문의 군포시생활문화센터 031-390-3043	11 12 13 14 15 16 17 2020 신기방기 우리동네 미술관 「사물탐색, 미술감상법」 일시 10. 12(월)~11. 5(목)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장르 조각(설치미술) 작가 엄아름, 장혜진, 박길중, 전기영 내용 예술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전시 문의 창작진흥팀 031-390-3521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의 보석상자〉 V. 베토벤, 교향의 완성 일시 10. 15(목) 11: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15,000원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미디어 상상놀이극 〈거인의 책상〉 일시 10. 17(토) 11:00, 15: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죽홀 입장료 10,000원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18 19 20 21 22 23 24 2020 군포생동감 온라인 생활문화축제 일시 10. 17(토)~18(일) 장소 온라인 채널 및 안내시설 (버스정보안내대기, 마을버스 내 TV, 아마트 앞 영상 LED 등) 문의 군포시생활문화센터 031-390-3042 2020 가을음악회 〈Falling in Fall〉 일시 10. 22(목) 19:3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20,000원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Rock & 樂 Concert Vol.33 아도이 일시 10. 24(토) 19: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죽홀 입장료 전석 50,000원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25 26 27 28 29 30 31 전통과 현대를 잇는 민화展 〈민화 속 이야기〉 일시 10. 12(월)~11. 7(토) 일요일 휴관 - 관람시간 : 총 4회(10, 12, 14, 16시) - 관람정원 : 회차별 50명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입장료 5,000원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댄스실롱 in 군포 IV. TAP Show 일시 10. 28(수) 19: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죽홀 입장료 문화가 있는 날 특별가 5,000원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어린이 기획전시 「내가 먼저 GREEN」 한가족 프로젝트 일시 8. 31(월)~10. 31(토) - 관람시간 : 총 3회(10, 14, 16시) ※ 코로나19 관련 일정 변동 가능 내용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한 전시 참가료 1가족당 5,000원 무료(재료비 별도) 장소 수리산상상마을 신청 인터넷 접수(blog.naver.com/gpbocookvillage) 문의 031-390-3036 창작국악오페라코미크 〈인당수의 우렁충각, 용궁 출신입니다만〉 쇼케이스 일시 10. 31(토) 16: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무료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이벤트 당첨자

군포소식 제392호 설문조사
당첨자(30명)

최*셀	김*희
김*솔	남*
노*영	강*미
박*주	김*현
조*정	김*경
김*수	정*희
서*옥	강*호
박*정	조*리
손*수	김*선
이*욱	김*주
김*선	안*현
김*엽	조*훈
김*인	문*진
염*규	노*호
김*형	이*제

마스크만 잘 - 착용해도



코로나19
감염위험 **85%** 감소

질문. 파주 스타벅스 방문자 26명 확진. 하지만 직원은 모두 음성!
어떻게 직원들은 감염되지 않았을까요?
정답. 철저한 마스크 착용 덕분입니다.

